

# ‘침묵, 그 고요한 외침’...시대를 압축한 한장의 예술

‘폴란드 포스터’展...내달 21일까지 ACC복합전시1관

이함캠퍼스 소장 폴란드 포스터 거장 10인 작품 등 180여 점 선배 포스터 구상·제작 과정 작업실 재현...밀그림·창작자료 함께 전시

거리의 벽면을 가득 채운 강렬한 이미지들 사이로 1950년대 바르샤바의 공기가 스며든다. 배우의 얼굴 대신 상징과 은유로 영화의 정서를 압축하고, 짧은 문장과 절제된 색채 안에 시대의 불안과 저항 의식을 담아낸 폴란드 포스터들이 광주를 찾았다. 검열과 억압 속에서도 예술적 자유를 갈망했던 폴란드 포스터의 세계가 ACC에서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6월21일까지 ACC 복합전시관에서 ‘침묵, 그 고요한 외침\_폴란드 포스터’전을 개최한다. 전시는 1950-60년대 활동한 ‘폴란드 포스터 학파’(Polish School of Posters)를 집중 조명한다. 이함캠퍼스가 소장한 대표 포스터 180여 점과 밀그림 80여 점 등을 광주·전남권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전시 작품들은 오왕택 중앙문화재단 이사장이 수년간 폴란드 현지를 오가며 수집한 컬렉션이다. 오 이사장은 10여년 전 폴란드 방문 당시 우연히 접한 폴란드 영화 ‘라스트 스테이지’(The Last Stage) 포스터를 계기로 작품 수집을 시작했다. 이후 폴란드 전역의 수집가와 갤러리를 찾아다니며 대규모 컬렉션을 구축했

고, 현재 이함캠퍼스는 수천 점 규모의 폴란드 포스터를 소장하고 있다.

폴란드는 ‘포스터의 왕국’이라 불릴 만큼 세계적인 포스터 예술의 중심지로 꼽힌다. 특히 1950-60년대 폴란드 포스터 학파는 영화·오페라·전시 등을 홍보하는 상업적 매체였던 포스터를 독창적인 예술 영역으로 끌어올리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당시 폴란드 포스터 작가들은 사회주의 체제와 검열 속에서도 상징과 은유를 활용해 메시지를 담아냈다. 직관적인 재현 대신 함축적 이미지와 조형 언어를 활용한 작업들은 세계 그래픽 디자인사에서도 중요한 흐름으로 평가받는다.

전시장에는 헨리크 토마세프스키를 비롯해 안 레니차, 발데마르 시비에르지 등 폴란드 포스터 거장 10인의 작품이 소개된다.

안 레니차의 오페라 포스터 ‘보체크’ 등 대표작들은 절제된 이미지와 강렬한 조형 언어를 통해 폴란드 포스터 특유의 미학을 보여준다.

이들 작품은 할리우드 영화 포스터처럼 배우의 얼굴과 서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 작품의 핵심 정서를 새롭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제



포스터 학파의 특징과 기법 등에 대해 소개하는 ‘키워드 본 폴란드 포스터’ 섹션.



폴란드 포스터 학파 대표작들로 구성된 전시 인트로

작했다. 같은 원작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이미지로 재탄생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창작’으로 읽힌다.

전시는 폴란드 현대사를 함께 따라가도록 구성됐다. 191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어지는 포스터 그래픽 연대기를 통해 전쟁과 사회주의 체

제, 검열과 통제의 시대를 지나 독창적 예술 언어를 구축해온 폴란드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두 차례 세계대전과 스탈린주의 체제를 거친 격동의 역사는 포스터 속 이미지와 시각 언어에 고스란히 흔적을 남겼다.

현장에서는 당시 바르샤바 거리를 재현한 공간도 눈길을 끈다. 실제 도시 벽면처럼 포스터가 빼곡히 붙은 전시장에는 20세기 중반 유럽 거리 문화의 분위기가 살아 있다. 또 컴퓨터 그래픽이 없던 시절 작가들이 직접 그린 에스키스(밀그림)와 창작 자료들도 함께 전시된다. 작가 작업실을 재현한 공간에서는 포스터 한 장이 완성되기까지의 구상과 제작 과정을 엿볼 수 있다.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전문 해설사와 함께하는 도슨트 프로그램을 비롯해 전문가 강연, 폴란드 영화 상영, 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글·사진=최명진 기자

## 회화·시의 흐름 따라 ‘풀꽃이 머무는 시간’

풀꽃처럼 눈에 띄지 않는 순간들이 회화와 시를 통해 다시 드러난다. 화면 위에 쌓인 점과 색, 그 위에 얹힌 문장이 서로를 이어가며 하나의 감각으로 확장되는 전시다.

대담미술관은 오는 6월30일까지 기획초대전 ‘아무도 모르게 피어, 우리 안에 오래 머무는’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염순영 작가와 장성희 시인의 콜라보 전시로, 회화와 시를 결합한 형식으로 구성된다.

전시는 염순영 작가가 오랫동안 주목해 온 ‘작은 순간들’에서 출발한다. 바람에 흔들리는 풀꽃,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멈추지 않는 존재들을 화면에 담아내며 점과 색이 겹겹이 쌓인 화면 위에 시간의 흐름을 축적해왔다. 화면 속 요소들이 반복되며 장면을 이루는 방식은 이러한 시간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염순영 작가·장성희 시인 콜라보 전시...내달 30일까지 대담미술관



염순영 작가는 이름 없이 지나치기 쉬운 작은 존재들을 화면에 옮기며 질감과 색, 생명의 흐름을 기록한다. 작업 과정에서 마주한 ‘꽃망’의 순간은 풀꽃을 응시하는 시간으로 이어지며, 자연을 바라보는 감각과 내면을 돌아보는 사유로 이어진다.

장성희 시인은 이러한 회화를 깊이 들여다보며 떠오른 감각을 시로 옮긴다. 색과 점

으로 이어진 화면의 리듬은 문장으로 확장되며, 두 매체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장성희 시인은 일상의 사소한 장면 속에서 관계와 시간의 결을 탐색해온 문학 작가다. 최근에는 시 텍스트를 전시 공간으로 확장하는 작업을 이어가며 문장과 공간, 관객의 호흡이 만나는 지점을 탐구하고 있다.

/최명진 기자

## 소리로 이어온 40년, ‘적벽가’로 만나다

윤진철·박시양, 제자들과 합동 무대 오는 29일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 윤진철 명창과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 보유자 박시양 명고가 제자들과 함께 판소리 ‘적벽가’ 무대를 선보인다.

윤진철·박시양 보유자는 오는 29일 오후 7시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에서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및 판소리고법 공개행사 ‘동행’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소리로 맺어진 40년 인연’을 바탕으로 두 보유자와 이수자, 전수자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판소리의 전통과 계승의 의미를 풀어내는 자리다.

공연에서는 판소리 ‘적벽가’를 중심으로 스승과 제자가 함께 호흡하는 다양한 무대가 이어진다.

무대는 ‘삼고초려’와 ‘박망파 대목’을 시작으로 ‘조조 군사 분발’, ‘동남풍 비는 대목’, ‘조자룡 활 쏘는 대목’ 등 적벽가 주요 장면들로 구성된다.



소리꾼 윤진철



고수 박시양

윤진철 명창은 김홍남 선생과 김소희 전 보유자, 정권진 전 보유자에게 사사했으며 보성소리 적벽가를 계승해 2020년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박시양 명고는 김성권 전 보유자에게 고법을 배우고 전승 활동을 이어오다 2021년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두 사람은 1980년대 전남대 재학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오고 있으며, 서울과 지역을 오가며 합동 공개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최명진 기자

**묘지이장 · 개장**

가족묘 조성 / 개장 / 묘지이장 / 유골함 / 자연장

맞춤형 묘지이장 전문 ☎ 문의) 062-464-3466